

## 한국대댐회 주요연혁

- 1971. 8. 16      대한토목학회 ICOLD 사무국에 회원가입 필요 자료 요청
- 1971. 10. 20    대한토목학회 ICOLD 가입 국내위원회 조직 한국수자원개발공사  
(현재 K-water)주관 지정 권유
- 1971. 10. 25    한국대댐회 창립발기회 개최 (장소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 1971. 11. 27    창립총회개최 (주요사항 : 정관채택 및 임원선출, 장소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 1972. 1. 4      건설부장관 “사단법인 한국대댐회” 설립허가
- 1972. 1. 31    법인등기
- 1972. 4. 18    호주 캔버라 제40차 ICOLD 집행위원회 : 한국 67번째 ICOLD 회원국 승인
- 1981. 2. 21    사단법인 한국대댐학회로 명칭 변경
- 1992. 3. 3     사단법인 한국대댐회로 명칭 변경
- 1994. 12      한국대댐회 20년사 발간
- 2004. 5. 16~22   국제대댐회(ICOLD) 제72차 연차회의 서울 개최
- 2011. 8. 30    KNCOLD-Young Engineers Forum(YEF) 위원회 신설

## 한국대댐회 40년



### 1. 태동기-한국대댐회 설립배경

1959년의 국제대언제기구 한국위원회 창립을 위한 1차 시도에서 1972년 4월 ICOLD회원국으로 가입될 때 까지를 우리 한국대댐회의 태동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대댐회 또는 국제대언제기구 한국위원회를 설립하여 ICOLD에 가입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두 번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59년 6월에서 1961년 5월에 이르는 기간에 있었으나 4.19 및 5.16 등의 국내사정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두 번째 시도는 1971년 8월에서 1972년 4월간에 있었고 드디어 ICOLD 가입이 성사되었다. 실로 1959년에서 1972년에 이르는 너무나 길고 지루한 여정이었고 우리 한국대댐회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가. 1959-1961년간의 1차 시도

6.25동란의 전화에서 벗어나 전재복구가 한창일

무렵 당시 조선전업(주)은 화천, 청평댐 및 수력발전소 복구공사를 하는 한편 높이 28m, 시설용량 2600kW의 괴산댐 및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국내기술만으로 1957년에 준공시키는 위업을 달성하였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전업은 춘천, 섬진강 및 충주댐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에 일부 착수하고 있었다. 당시 상공부와 조선전업에서 추진하던 이러한 일련의 수력발전의 기운이 국내 댐 관련기술인의 심금을 울리게 하여 드디어 댐 기술의 국제교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우리 댐 기술인사이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댐 기술의 국제교류의 선봉에 선분이 당시 서울공대교수이던 故 원태상박사였다. 그 이전부터 원태상교수는 ICOLD와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원태상교수의 발의로 14명의 국제대언제기구 한국위원회 발기인이 모여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창립총회에서는 이희준 당시 조선전업 사장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故 원태상박사의 경과보고가 있었다. ICOLD 즉 국제대언제기구에 대한 소개와 한국이 ICOLD 회원국이 되려면 한국위원회 설립이 선행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다음은 '사단법인 국제대언제기구 한국위원회'의 정관초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였다. 이때 통과된 정관의 낱말을 보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있다. 참고로 이 정관의 제3조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본회는 국제대언제기구(ICOLD)의 산하단체로서 언저에 관한 기술적 및 학술적 문제를 연구하고 가맹국과 여사한 자료를 교환함으로 인하여 아국에서의 언저의 설계 구축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개량 향상시킴으로서 아국에서의 수력개발 관개 상수도 공장용수 및 치수사업의 진보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정관이 의결통과 된 후 창립총회의 마지막 순서인 임원선출이 있었다.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은 아래와 같다.

**회장: 이희준 (조선전업 사장)**

**부회장: 원태상**

**이사: 이성(상임), 한을출(상임), 안수한(상임), 최인성, 이상련**

**감사: 최경렬**

**간사: 최종완, 이경보**

이상과 같이 1959년 6월 30일 창립총회에서 모처럼 '한국대언제기구 한국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당초의 기세와는 달리 그 후의 행보가 지지부진하였다. 제1회 이사회가 1959년 7월 7일에 열렸으나 그 후 자유당 말기에서 제2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사회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의 한국위원회도 시련을 겪게 되었다.

사단법인 국제대언제기구 한국위원회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겨우 1960년 5월 9일자로 받아내고 법원등기는 1960년 5월 31일에야 마무리되었다. 그리하여 제2회 이사회는 창립총회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61년 1월 27일에 제3회 이사회가 소집되어 총회일자를 1961년 2월 4일로 일단 잡았으나 정계혼란과 민중시위의 격화동으로 유회되고 말았다.

그러나 제3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1961년 2월 2일자로 ICOLD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에 당시의 영문신청서와 그 신청서에 첨부된 한국위원회의 회장단 및 이사진의 명단을 수록하니 참고해 주기 바란다.

위 가입신청서에 대한 ICOLD측의 답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당시 한국위원회의 이경보 간사의 이야기다. 혹시 故 원태상 교수가 생존하고 있다면 당시의 ICOLD 본부와의 오고 간 이야기를 더 추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일은 아니다. 어찌 됐던 1961년의 우리 ICOLD 가입 의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 THE KOREA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2 Feb. 1961

Mr. Garl A. Hathaway, President  
through  
Mr. C. E. Chauvez, Secretary General  
ICOLD.  
91 rue St. Lazare  
Paris, France

Dear Sir

I have honor to inform you that "the Korea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Dams" has been organized since 30 June, 1959 for the purpose of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of the ICOL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Committee of the ICOLD wished to become a member of the ICOLD on signifying its adherence to the constitution of the ICOLD. I shall attach here the name of the officers of the Korea Committee. If it is necessary I will inform constitution of the Korea Committee.

Waiting your admission and further informations.

Yours very truly,

Hi-Jun, Lee  
Chairman

### Officers of the Korea Committee of ICOLD

Chairman : Hi-Jun Lee, CE., President, Korea Electric Power Co.

Vice-Chairman : Tae-Sang Won, PHD., CE. D. Eng., Professor of Hydraulic E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retary-Treasurer : Song Lee, CE., Chief Engr, Korea Electric Power Co.

Secretary : Su-Han Ahn, CE., Assit. Proffessor of Hydraulic E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retary : UI-Chul Han, CE., Bureau of Irrig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Secretary : In-Song Choe, CE., Bureau of Electricity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Secretary : Sang-Nyon Lee, CE., Bureau of Public Works, Ministry of Home Affairs.

1961년 5월 16일의 소위 5.16군사혁명으로 제2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제3공화국이 들어섬에 따라 사회의 일대변혁이 일어났다. 당시 우리 한국위원회의 임원들이 소속한 내무부, 상공부 및 서울시등 공무원 사회는 물론 국영기업체인 조선전업(주)등에 인사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하의 경직된 사회에서는 복지부동의 기풍이 만연하여 한국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결국 1959년 6월 30일의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한 한국대연제기구 한국위원회는 겨우 3회의 이사회만을 개최하였을 뿐 단 한번의 총회도 없이 소멸되고 말았다.

나. 1971~1972년간의 2차 시도 및 성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9년에서 1961년에 걸친 한국의 ICOLD 회원국 가입 시도는 불발로 끝났으나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1년에서 1972년에 이르는 제2차 시도에서 드디어 숙원을 성취하게 된다. 그 때의 상황을 돌아보기로 한다. 제2차 시도의 출발점은 1971년 4월 24일 대한토목학회 총회에서 안경모 당시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 제16대 토목학회 회장으로 피선된 일에서 찾을 수 있다.

안경모회장은 취임하자 토목학회와 국제학술단체와의 교류에 제1의 역점을 두었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ICOLD 가입의 제2차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안경모회장의 국제학술교류 의도를 실천에 옮긴 사람은 당시 토목학회 상무이사이던 한국수자원개발공사 공무원이던 김여택이었다.

김여택은 토목학회 상무이사로서 국제교량구조학회, 국제수리학회, 국제항만학회, 국제관개배수학회 및 국제대담회의등과 교류하기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맨 먼저 청신호를 보내 온 곳이 ICOLD 즉, 국제대담회였다.

대한토목학회는 1971년 8월 16일자로 ICOLD본부에 공한을 발송하여 ICOLD가입에 필요한 수속절차와 소요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ICOLD는 1971년 8월 26일자로 ICOLD의 정관(Constitution) 및 내규(By-law)를 송부하면서 뒤 이어 사무총장으로부터 별도 회신이 있을 것이라는 답신을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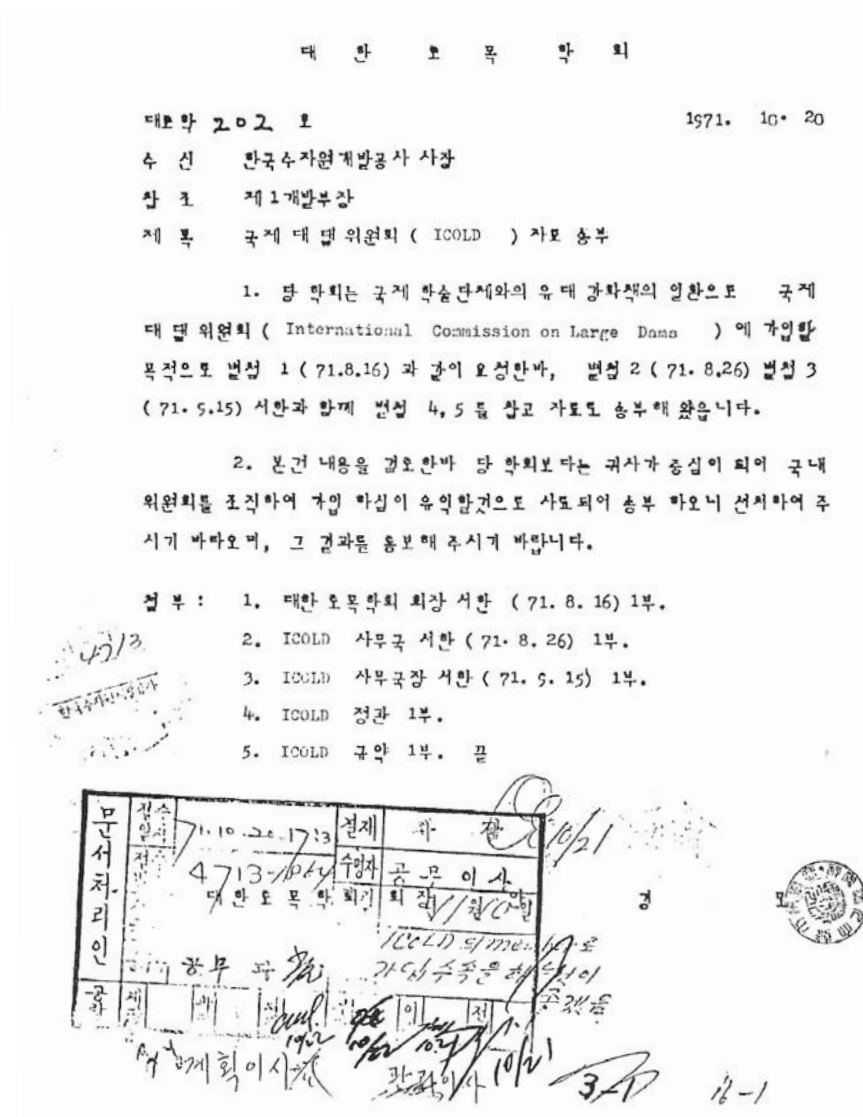
그 후 1971년 9월 15일자 ICOLD 사무총장 서신이 도착하였다. ICOLD에 가입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위원회를 조직하고 정관을 첨부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요지였다. 가입의결은 1972년 4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제40차 집행위원회에서 있을 것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1972년 1월 초순까지 가입신청을 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국내 댐 목록을 작성하라는 부탁도 있었다.

그런데 ICOLD의 긍정적인 회신에 접한 우리 토목학회는 정작 당황하였다. 당시 토목학회의 재정규모를 가지고는 ICOLD 가입비 및 적지 않은 년회비를 감당할 도리가 없었다. 또한 ICOLD 본부 및 각 ICOLD회원국과의 영문교신문제, 300개의 가까운 국내 댐목록 작성문제 등 방대한 사무량을 토목학회로서는 처리할 자신이 없었다.

토목학회는 숙의 끝에 묘안을 생각해 냈다. 즉 당시 안경모회장이 사장으로 있는 댐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한국의 ICOLD 가입문제와 그 후속조치 일체를 위임하자는 방안이다. ICOLD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의 재정역량과 사무처리 역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71년 10월 20일자 대한토목학회가 한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역사적인 서한이다. 그 사본을 아래에 수록한다.

1971년 10월 20일자 토목학회 공문을 접한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이하 수공이라고 한다)는 안경모 사장 주재 하에 한국대담회 창립 발기인회를 갖고 창립준비에 착수하였다. 1971년 10월 25일의 일이었다. 창립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대담회 창립발기인 명단

대표자	안경모
	김여택
	이정보
	정강흡
	정희원
	조규화
	박희영
	김창배

1971년 11월 10일에 한국대담회 정관초안을 작성하고 창립 취지문을 만들었다.

드디어 우리 한국대담회의 창립총회가 1971년 11월 27일 오후 2시에 당시 수공회의실에서 3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창립총회는 당시 수공 안경모사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하고 당시 수공 이정보 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기리기 위하여 안경모 임시의장의 개회사와 본 총회에서 채택된 한국대담회 창립취지문을 여기에 소개한다.

안경모임시의장의 개회사

「오늘 이 자리에서 발기인 및 회원 여러분과 같이 ‘한국대담회’의 창립총회를 갖게 된 것을 다같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하 국제정세는 중공의

UN가입을 계기로 급변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국민의 결의와 태세는 굳건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민민복에 기여할 기술의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기술 협조와 학술교류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보다 먼저 선수를 써서 기술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세계적인 대담인 소양강 및 안동담을 현재 건설하고 있으니 이 총회에 우리나라의 대담 건설기술을 해외에 소개하여 국위선양을 할때가 왔다고 봅니다. 담 건설은 종합기술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28년에 창설되어 66개국의 회원국을 갖고 있는 국제대담회(ICOLD)에 가입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뜻깊은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본회의 발전과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고전과 편달을 바랍니다」

한국대담회 창립취지문

「우리나라 사대강유역개발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주과제의 하나이며 곧 대담 건설과 직결되며 대담 건설은 각종 기술의 종합으로 달성되는바 제 외국에서는 1920년대 말엽부터 대담에 대한 학술 및 기술발전을 기하고저 공동협력을 경주해 왔으며 대담(높이 15M이상)이 수개에 불과한 여러나라를 포함하여 수백개 이상인 미국, 일본, 인도 등 66개의 국가가 현재 ICOLD의 회원국으로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이때 200여개의 담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야 한국대담회를 창립함은 늦은 감이 있던 차에 1971년 10월 20일자 대한토목학회 공한으로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주축이 되어 국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장한 바 있음으로 차제에 제 외국과 같이 대담 및 관련 시설과 관계되는 개인 및 단체를 망라한 ‘한국대담회’를 창립하여 담에 대한 기술 및 학술문제를 연구하고 ICOLD본부 및 여러 가맹국과 기술협력 및 교류등의 유대를 공고히 하여 담 기술향상을 도모함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대담회 정관을 축조심의하여 통과시키고 임원선출이 있었다. 당시 의결된 정관의 제3조(목적)는 오늘날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참고로 소개한다. 제3조(목적)는 ‘본회는 대담과 관련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 및 운영, 저수지의 이용에 관한 학술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긴밀히 함으로서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당일 선출된 한국대담회의 초대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대담회 초대임원 명단

회장	안경모
부회장 (2)	조정규 최영박
이사 (15)	김여택 김경린 이정보 이정하 이에민 황찬백 김경수 신경식 김영근 최영택 정주영 노승욱 안수환 진병익 신영기
감사	성낙상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한국대담회는 그 후 빠른 템포로 건설부장관에게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ICOLD가입 신청서도 송부하였다. 1972년 1월 4일자 공문으로 건설부장관의 한국대담회 설립허가가 발부되었다. 뒤이어 1972년 1월 10일자로 ICOLD 본부로부터 1972년 4월에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ICOLD 제40차 집행위원회에 참가를 요청하는 회신이 도래하였다. 또한 1972년 1월 31일자로 한국대담회의 법원 설립등기를 필하고 이 사실을 건설부장관, 외무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및 중앙정보부장에게 보고하여 ICOLD 가입을 위한 한국대표단의 호주여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한국대담회 제1차 이사회가 1972년 2월 19일에 수공 회의실에서 열렸다. 창립 이래 처음 열린 이 이사회에서는 한국대담회 운영세칙이 의결되고 ICOLD 제40차 집행위원회에 한국대표로 안경모회장을 파견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 담 기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ICOLD 가입을 위하여 제40차 집행위원회 참석자 안경모회장이 드디어 1972년 4월 14일에 김포를 떠나 호주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4월 18일 즉, 제40차 집행위원회의 제2일째에 한국은 ICOLD 제 6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승인됐다. 안경모회장의 경과보고문을 인용하여 ICOLD 가입 순간의 감격을 되새겨 보기로 하자.

4월 17일부터 집행위원회가 열렸다. 작년 제39차 집행위원회의 의사록을 채택 통과시킨후 한국의

회원국 가입문제가 상정되었다. 그때까지는 한국은 아직 회원국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가입이 의결될 때까지는 나는 회의장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회의는 약 10분간 토론이 계속되었다.

그 후 ICOLD 사무총장 야노씨는 대기하고 있는 곳에 나와서 나를 회의장 안으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레와 같은 박수로 나를 맞아주는 것이었다. 내가 Korea석에 착석하자 곧 의장인 토라안박사는 나에게 한국의 회원국 가입이 승인되었다는 것을 알리면서 소련 대표로부터 한국위원회의 호칭이 Korea Committee로 되어 있는 데 사실은 South Committee의 호칭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을 전하면서 나에게 경과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나는 즉석에서 우리의 호칭은 절대 바꿀 수 없으며 Korea는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다.

의장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 South Korea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대로 승인했다는 이야기에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후 짙막한 감사연설을 했으며 오전회의를 끝마치고 나는 의장에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비정치적인 회의석상에서 나오느냐고 물으니 해마다 이러한 정치적 발언이 한두가지는 나온다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 한국이 67번째의 지극히 뒤늦은 회원국이 된 것이다.

한국의 ICOLD 회원국 가입이 의결된 직후 이에 답하는 안경모회장의 감사 연설문을 여기에 수록한다.

Speech delivered by Mr.Ahn Korean Representative at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on April 18, 1972

Mr. President Distinguished delegates, and Gentlemen!

I feel doubly honored to address you here today : first for the honor given Korea in selecting her at this meeting as a new member country, and second for the personal honor of being invitd to attend this most significant meeting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Korea Na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

Through continuing and tireless efforts the ICOLD has achieved ad enviabile position of eminence in the field of water resources throughout the world. I wish to offer my sincere congratulations for this achievement.

On this occasion of Korea's first participation, I assure you that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assist in furthering the objectives of ICOLD and ready and anxious to assume the responsibilities of our membership as well as to enjoy the benefits we know will accure to Korea.

In conclusion, Mr. President and Distinguished Delegates, I wish to express my sincere thatks for the welcome I have received and for the previlege of joining such a distinguished group. May the ICOLD enjoy continuung success in the important and ever more difficult work which lies ahead.

Thank you very much.

제40차 집행위원회에서 ICOLD 회원국 가입이라는 큰 성과를 올린 안경모회장은 귀국 후 곧 한국대담회 제2차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귀국보고를 하였다. 이것으로서 한국대담회는 명실공히 굳건한 뿌리를 국내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내리게 되었고 힘찬 제일보를 내딛게 된 것이다.

## 2. 요람기(1972~1975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9~1961년의 1차시도에서는 실패했으나 1971~1972년의 2차시도 끝에 한국대담회는 ICOLD회원국으로 가입하는 숙원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창립 후 1975년경까지는 재정 행정면에서 홀로서기가 어려워 인간에 비유하면 유아기에 해당하는 기간이었기에 1972~1975년간을 한국대담회의 요람기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물론 현재에 있어서도 한국대담회는 수공이라는

막강한 인적 물적 배경에 의지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1972년 창립 이후 2~3년간은 전적으로 수공에 업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수공의 안경모사장 이하 댐 사업추진을 위한 지휘라인이 그대로 한국대담회 업무의 추진라인이 되어 힘차게 가동되었다. 따라서 한국대담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공의 개발부 공문과 직원을 겸무발령으로 무보수로 한국대담회 사무요원으로 임명했다. 물론 재정문제도 수공에 의지하였다. ICOLD 가입비 및 ICOLD 년회비 등 \$1,300 과 1972년 한국대담회 경비 50만원도 수공의 찬조금으로 충당되었다. 안경모회장의 ICOLD 집행위원회 참석여비는 전액 수공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ICOLD 가입과 동시에 한국대담회는 할 일이 태산 같았다. 우선 200여개 되는 한국의 댐 목록을 작성하여 ICOLD 본부에 제출해야 했다. 그리고 한국대담회 업무활동 상황(1972 General Paper of KNCOLD)을 ICOLD 본부에 보고하는 일, ICOLD 제11차 총회에 제출하는 논문을 작성하는 일 등이었다.

당시까지 확인된 274개의 한국의 댐 목록을 작성하여 1972년 6월 13일자로 ICOLD 본부에 5부를 송부하고 ICOLD댐 등록위원장인 미국의 T.W.Mermel에게 1부를 보냈다. 당초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30~40개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각 관계기관 자료를 취합해 보니 274개에 달했다. 274개의 댐 등록서류는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초창기의 한국대담회의 애로사항은 돈 문제였다. 회원의 년회비만 가지고는 본회 운영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창립 때 정관에는 개인회원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통회원과 단체회원,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회원을 두는 것으로 개정기로 하였다.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단체회원으로 가입시켜 찬조금을 얻어내자는 전략이었다.

이 정관개정은 1972년 6월 22일자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냈다. 그 무렵 한국대담회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시 본회 부회장(삼부토건)의 찬조금으로 20만원을 출연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회 창립 첫해인 1972년에는 이사회가 4번 개최되었고 임시총회가 한번 있었다. 창립이후 처음 맞는 제1차 정기총회를 1972년 12월 16일에 개최함으로써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국대담회의 창립 첫해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가 있었다.

1973년 1월에 수공의 인사이동으로 본회 사무국장에 조규화 공무과장이 임명되어 1973년 6월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ICOLD 제41차 집행위원회와 제11차 총회준비에 부산하였다. 본회에서는 안경모회장 등 4명을 제41차 집행위원회와 제11차 총회에 파견하였다.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ICOLD 제11차 총회 논문집에 수공 개발부에서 작성 제출한바 있는 논문 즉 'Sand and Gravel Embankment in Winter Season in the Soyang-Gang Dam' 이 채택되어 게재되는 영광을 누렸다.

1974년 2월에 본회 사무국장이 이성용에서 정

기진으로 교체되었다. 그동안 본회를 2년여 운영 해본 결과 본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원수를 늘려야 하고 단체회원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1974년 2월에 본회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이 임시총회에서 임원의 정원을 늘리는 정관 개정이 의결되고 일부 임원의 개선이 있었다. 이사수를 9명 증원하여 충원하였다.

1975년초부터 ICOLD 제12차 총회에 제출 할 논문때문에 여러번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안동댐의 심벽재료로 사용한 화강토에 관한 논문을 1편 작성하여 ICOLD 본부로 보냈다.

이 논문은 당시 안동댐 공사사무소 소장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것이었다. 1975년 10월에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ICOLD 제43차 집행위원회는 수공의 김여택이사가 단신 참석하였다. 본회의 제4차 정기총회는 예년보다 좀 빨리 11월 8일에 개최되었다. 이렇듯 1972년에서 1975년에 이르는 기간은 앞에서 요람기라고 명명한 바와 같이 본회의 대내외적인 위상정립과 체제정비에 급급했던 시기였다.

### 3. 성장기(1976~1984년)

한국대담회의 활동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ICOLD라는 국제사회에서도 눈에 보이게 활성화하여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고 생각되는 1976년에서 1984년에 이르는 기간을 성장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84년 5월에는 본회가 스폰

서가 되어 ICOLD의 '1984 Pre-Meeting Study Tour' 가 우리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한 사건은 그동안 우리 한국대담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사였다.

1976년 초에 한국전력이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보통회원의 가입권유 캠페인에도 수공 직원 및 농진공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벌였다. 1976년 3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ICOLD 제44차 집행위원회와 제12차 총회에는 본회에서 안경모회장을 비롯하여 4명이 참석하였다. 총회논문으로 'Development in Andong Dam' 이 ICOLD 논문집에 게재되고 총회 석상에서 직접 발표하는 성과를 올렸다. 1976년 3월경부터 정부 인가 유사단체의 통·폐합등 정비시책의 일환으로 한국대담회와 수문학회의 통합권유를 건설부로부터 받아 왔으나 본회는 이를 강력히 거부하여 동년 8월 31일자로 통합권유를 철회하는 건설부 공문을 접수하여 이 문제에 중지부를 찍었다. 본회의 제5차 정기총회는 1976년 12월 11일에 개최되었다. 이 총회 석상에서 본회의 홍보 및 ICOLD관계 교양을 다룬 'Newsletter No.1' 이 배포되어 전회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

또한, 1977년 6월 25일에는 한국대담회 창립 이래 모든 회원이 갈망하던 제1회 '댐 건설 및 관리 기술 세미나' 가 개최되었다. 본회의 발전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쾌거였다.

중전에는 매년 12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세입세출결산사의 문제가 있어 정기총회를 매

년 1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관개정을 하여 1978년 11월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1978년 12월의 정기총회를 없애고 1979년 1월에 개최기로 하였다.

1979년 초에 이병수사무국장이 사임하였다. 1979년 2월의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의 빈번한 교체문제와 ICOLD본부 사무총장과의 위상문제를 토의한 끝에 수공의 이사가 본회 사무국장을 겸무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수공의 김여택이사가 1979년 2월에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제3회 댐 건설 및 관리기술세미나가 1979년 9월에 개최되었는데 발표논문수가 5편에 이르러 대성황을 이루었다. 우리 한국대담회의 성장을 실감케하는 충실한 세미나였다.

1979년 10월 인도 뉴델리의 ICOLD 제47차 집행위원회 및 제13차 총회에는 본회 창립 이래 가장 많은 회원인 10인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제47차 집행위원회 기간중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여 회의에 참석중인 본회 회원들은 비탄에 잠겼고 안경모회장은 회의도중에 급거 귀국하게 되었다.

1980년 1월 19일 본회 제8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당연직 부회장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이 있었고 임원개선이 있었다. 당연직 부회장제는 댐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한 조치로서 수공 부사장, 한전 부사장, 농진공 부사장 및 건설부 수자원국장을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날 총회에서 안경모가 제5대 회장으로 연임되었다.



1980년 10월 이태리 로마의 제48차 집행위원회에는 국민투표 등 국내사정으로 부득이 한국대담회는 한국대표를 파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한국은 ICOLD의 Hydraulics for Dams와 Sedimentation of Reservoir의 기술분과 위원국으로 선임되었다. 곧 이어서 ICOLD의 P. Londe 총재로부터 한국이 ICOLD의 2개 기술분과 위원국으로 승인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제49차 집행위원회에 2명의 위원을 참가시키도록 요청해왔다.

1981년 1월에 본회의 명칭을 한국대담학회로 바꾸라는 지시공문을 접수하여 본의 아니게 명칭변경에 대한 정관개정을 실시하여 동년 2월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다. 제9차 정기총회는 1981년 1월 24일에 개최되었다. 2월에 본회 창립이래 고대 해 왔던 전임 사무국장이 임명되었다. 김종천 전임 사무국장이 탄생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본회의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1981년 5월의 본회 이사회에서 Newsletter를 회보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였다.

1981년 12월의 본회 이사회에서는 '1984 Study Tour in Korea'를 실시키로 합의하여 일본대담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1982년 4월 브라질 리오 데자네이루의 ICOLD 제50차 집행위원회에서 '1984 Study Tour in Korea'가 확정되었다. 표결에 앞서 안경모회장의 초청연설이 있었다. 1982년 10월에 ICOLD의 J. Cotillon 사무총장과 S. Ichiura 부총재가 내한하여 '1984 Study Tour in Korea'의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1983년 1월 21일에 본회 제11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해 5월에 본회 사무국을 정동에서 여의도로 이전하였다. 수공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른 것이다.

1984년 1월 28일 본회 제12차 정기총회에서 당시 수공의 이희근사장이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안경모 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명예회장제 신설에 따른 정관개정도 있었다.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대망의 Pre-Meeting Study Tour in Korea가 실시되었다. 21개국에서 95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한국대담회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행사였다.

8월에는 제15차 총회논문 4편을 ICOLD본부에 보내고 아시아지역 ICOLD부총재 후보로 본회에서는 안경모 명예회장을 추천하였다. 12월에는 '댐 건설기술 분과위원회'에 한국이 위원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긍정적인 회신이 ICOLD 사무총장으로부터 도래하였다.

이상으로 1976에서 1984년에 이르는 우리 한국대담회의 성장기의 양적 성장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았다. 이 성장기를 거침으로서 한국대담회는 국내외에 그 능동적인 위상을 확고히 성립할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 4. 도약기(1985~2003)

1984년 ICOLD 제52차 집행위원회 한국 내 Study Tour(Pre-Meeting Study Tour)의 성공적실시를 계기로 이루어진 ICOLD사회와의 밀접

한 교류로 인하여 ICOLD집행위원회 및 총회 참석인원, 발표논문편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공유하천분과위원회의 창설등 활발한 분과위원회 활동과 이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조성이 성사되어 그야말로 한국대담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1985년에서 역사적인 행사인 제72차 ICOLD 국제대담회 연차회의 서울 개최준비(2003년)에 이르는 기간을 도약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5년 1월 31일 본회 제13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그리고 5월에는 안경모 명예회장의 ICOLD부총재 출마에 협조를 얻기 위하여 53개 ICOLD 회원국에 지지 공한을 발송하였다. 6월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제15차 총회에는 안경모 명예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16명과 가족동반자 4명 등 무려 20명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안경모 명예회장의 ICOLD 부총재 출마는 집행위원회 투표결과 인도네시아의 M. Umar에게 패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당시 안경모 명예회장의 ICOLD 사회에서의 친분이나 지명도 또한 그동안 ICOLD에 대한 한국대담회의 기여도를 생각할 때 참으로 애석한 사건이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그 다음해 즉 1986년의 ICOLD 제54차 집행위원회의 주최국이라는 시기적인 프리미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1986년 1월 24일의 본회 제14차 총회에서 이희근회장이 제8대 회장으로 연임되었다. 5월의 본회 이사회는 종전의 관례를 깨고 이희근회장의 발상으로 수공 낙동강하구둑 공사사무소에서 개

최되었다. 공사현장 견학을 겸한 이사회를 지방 현장에서 개최함으로써 본회 이사회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54차 집행위원회에는 6명이 참가하였다. 그동안 초대 전임 사무국장으로서 본회운영에 심혈을 경주해 온 김종천사무국장이 오랜 투병 끝에 약석의 보람 없이 1986년 7월 19일에 타계하였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다 8월에 「회보 제17호」가 발간되고 11월에 제7회 댐 건설 및 관리기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1월 초부터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이 표면화되어 우리 한국대담회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ICOLD 총재에게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한국대담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서신을 발송하게 되었다.

12월에는 본회의 기술개발을 제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하여 본회에 3개의 기술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댐 설계분과위원회」 「댐수문 및 수리분과위원회」 및 「댐 시공 및 관리분과위원회」 등이다.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다. 본회로서는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1987년 1월 5일 그동안 공석이었던 2대 사무국장으로 이정용이 임명되어 본회 사무국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본회 제15차 정기총회가 1월 23일 개최되어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이 의결되었다. 4월에는 「평화의 댐」에 대한 홍보책자를 영, 불, 일 및 국어로 발간하였다. 5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ICOLD 제55차 집행위원회는 이희

근회장, 안경모명예회장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국제공유 하천위원회의 신설을 제의했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옹서버로 참석했다. 북경 55차 집행위원회 기간 중에 ICOLD 총재에게 한국위원회 명의로 「공유하천위원회」 신설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9월에 ICOLD의 J. Cotillon 사무총장이 내한하였고 10월에는 ICOLD의 G.Lombardi 총재로부터 「공유하천위원회」 신설에 긍정적인 회신이 왔다. 11월에 본회의 제8회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종전의 댐 건설 및 관리기술세미나의 명칭을 학술발표회로 바꾼 것이다. 12월에는 ICOLD 「공유하천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하는 소위원회를 본회에 구성하였다.

1988년 1월 29일에 본회 제16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ICOLD는 「공유하천위원회」의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3월에는 각 회원국에 「공유하천위원회」의 신설을 제56차 집행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한다는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 한국대담회에 있어서 필담 설계이론을 선도했고 국내외 학술논문발표에도 가장 열성적이었던 본회 주병익이사가 숙환으로 3월 31일 타계하였다. 인명제천이라고는 하나 우리나라 학계는 물론 본회로서도 참으로 애석한 이별이었다. 5월에 「회보 제19호」가 발간되고, 6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ICOLD 제56차 집행위원회 및 제16차 총회에 안경모 명예회장을 포함한 26명의 대표단과 가족동반자 4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ICOLD라는 한국이 제안한 「공유하

천특별위원회」를 창설하고 그 위원장으로 이상면 이사를 지명하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또한 이 회의에서 북한도 ICOLD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ICOLD 제16차 총회에서 8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발표 논문수에 있어서도 한국대담회의 발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ICOLD의 요청으로 선우중호이사는 이 총회 Q63 논문 발표회의 부좌장(Vice Chairman)을 맡았다.

1989년 1월 30일 본회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이상희 당시 수공 사장이 본회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되고 이희근 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상희 수공사장이 타 부처로 전임하게 되어 5월 8일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본회 제10대 회장으로 이태교 신임 수공사장을 선출하고 이상희 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키로 의결하였다.

이상희 명예회장은 정통 내무관료 출신으로 우리 한국대담회의 운영 쇄신에 큰 기대를 모았으나 그 경륜을 펴보지도 못한 채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7월 덴마크 코펜하겐의 제57차 집행위원회에는 이태교회장, 안경모명예회장을 비롯하여 25명, 가족동반자 4명을 합하여 총 29명이 참석하였다. 제57차 집행위원회부터 「기술심포지움」에 참여하게 되어 이 논문집에 오병환의 「Advanced Fractures Analysis of Concrete Dam」이 게재되었다.

1991년 1월 29일에 본회 제19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ICOLD 제59차 집행위원회와 제17차 총회에는 이태교회장, 안경모

명예회장 등 25명과 가족동반자 7명을 포함하여 총 32명이라는 본회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우리 한국대담회의 도약상을 ICOLD 사회에 과시하였다.

이 회의에서 ICOLD 공유하천위원회의 상설화가 의결되었다. 안경모 명예회장이 ICOLD 6차석 부총재에 입후보하였으나 또다시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1992년은 본회 창립20주년이 되므로 9월에 한국대담회 창립20주년 기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1992년 1월31일 본회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임원 개선이 있었다. 이태교회장은 제11대 회장으로 연임되었다. 이날 임원개선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구조분야, 토질분야 및 환경분야 인사를 많이 보강하였다. 정기총회에는 1981년 이래 불러오던 「한국대담학회」를 「한국대담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관개정을 의결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1992년의 한국대담회의 창립 20주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동중이었던 20주년 기념 「댐 및 수자원개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일과 한국대담회 20년사를 발간하는 일이었다.

9월 스페인 그라나다의 ICOLD 제60차 집행위원회에는 이태교회장을 비롯하여 14명과 가족동반자 2명등 총16명이 참석하였다.

제60차 집행위원회 기술심포지움에서는 선우중호의 「Experience of an Extreme Flood at the Choongju Dam During the 9 to 15 of September 1990」이 발표되었다. 11월에는 본회 창립 20주년 기념 제12회 댐 건설 및 수자원개발

심포지움이 개최되고 이 자리에서 안경모 명예회장, 고 주병익, 고 김종천 등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 있었다.

12월에는 1992년도 본회 제5차 이사회를 수공 남강댐 공사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한국대담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동이 걸렸다. ICOLD 연차회의 유치를 위한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2001년 9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ICOLD 제69차 연차회의에서 2004년 연차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하는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때 총재, 사무총장은 확실한 지지를 약속했고, 부총재 및 각 회원국의 대표도 상당수 지지에 대한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 다음해 2002년 5월 브라질 이구아수(Iguassu)에 고석구회장을 비롯한 19인의 한국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집행위원회에서 2004년 연차회의 개최국이 선정되었고, 유치의향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한국이 선정되었다. 드디어, 국제무대에 대한민국, 한국대담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다.

한국유치가 결정된 후부터 2003년까지는 그야말로 연차회의 준비와 참가자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은 시간이었다.

2003년 6월 캐나다 몬트리얼에서 개최된 연차회의 및 총회에는 국내 참가자 모두 2004년 서울회의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고석구회장은 연차회의에서 서울회의 개요, 심포지움, 스터디투어





집행위원회에서 2004 연차회의 한국유치 연설중인 고석구 회장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과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추진전략(저개발국가 참가 지원방안, 각종 문화행사 소개 등)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최병만 사무국장(2004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등 직원들은 참가자 유치를 위한 홍보 전용 부스에서 유치활동을 펼쳤다.

72차 연차회의 유치, 준비, 개최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본 발간물 제4편 '2004년 ICOLD 연차회의 개최기' 를 대신하겠다.

### 5. 발전기(2004~현재)

2004년은 한국대담회 40년 역사에 길이 남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고, 세계인이 인정한 '제 72차 ICOLD 서울연차회' 의 찬란한 업적을 회의 결과보고로 확인해보겠다.

### ICOLD 2004 서울회의 개최 결과보고

- ▶ ICOLD 歴代 연차회의중 양적·질적 최고 대회로 평가
  - 65개국 940명 등록으로 최다 인원 기록
  - 워크샵 및 심포지엄에 36개국 162편 논문 제출로 최다 기록
- ▶ MOU 체결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 다변화 기반 구축 및 우리공사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중국 水利部 및 대담회, 이란 수력청 (IWPC), 러시아대담회, 일본대담회 협약
  - 워크샵, 심포지엄 및 전시회 등을 통해 공사의 선진기술력 입증
  - Technical Tour, Study Tour를 통해 친환 경적이며 체계적인 댐운영·관리 Know-how 제시

### I. 참가 개요

- ▶ 기 간 : 2004. 5.16(일)~5.22(토), 7일간
- ▶ 장 소 : 웨라톤워커히 컨벤션센터
- ▶ 참가자 : 총 65개국 938명  
(국외 634, 국내 304)

### II. 연차회의 주요결과

#### 주요 참가 현황

- 주요 국가 : 최근 연차회의중 최다국가 참석
  - 일본 143/ 중국 61/ 이란 58/ 러시아 51/ 미국 32/ 프랑스 24/인도 21/ 브라질 16/ 호주 14/ 독일 13/ 스웨덴 13/ 스위스 13/영국 12/ 스페인 12/ 남아공 11/ 노르웨이 9/ 태국 9/ 오스트리아 9/ 캐나다 8/ 루마니아 7/ 인도네시아 6/ 마케도니아 6/ 포르투갈 5/ 슬로베니아 5 (이상 대표단 5명 이상 파견국가)
  - 볼리비아 1/ 부르키나파소 1/ 코트디부와르 1/ 수단 1/ 이라크 1/ 모로코 3/ 나이지리아 2/ 스리랑카 2/ 파라과이 1/ 짐바브웨 3 (이상 3~5회 연속 불참국가중 대표단 파견국가 10개국)

#### ※ 최근 연차회의 참가국 현황

2003년 캐나다(51국), 2002년 브라질(51국), 2001년 독일(57국), 2000년 중국(62국), 1999년 터키(54국), 1998년 인도(49국)

#### □ 주요 참가자

- 정부 고위인사
  - 러시아 하원부의장(Pektin Vladimir), 중국 수리부 부부장(Suo Lisheng), 이란 에너지부 차관(Ardakian) / 수력청 사장 (Zahmatkesh), 베트남 농업개발부 차관 (Pham Hong Giang), 인도 수전력청 사장 (Prasad), 일본 수자원기구 감사(Ooyabu Kasm) 등
- ICOLD 총재단 및 대담회 회장
  - 총재(1), 명예총재(2), 사무총장(1), 부총재(6), 대담회장(59, 사무국장 포함), 분과위원장(19)

#### □ 국가별 참가 현황

국가명	참가자	국가명	참가자	국가명	참가자	국가명	참가자
1 알바니아	-	22 덴마크	1	43 한 국	304	64 슬로바키아	3
2 알제리아	-	23 도미니카	-	44 레바논	2	65 슬로베니아	5
3 아르헨티나	2	24 이집트	1	45 레소토	4	66 남아공	11
4 호주	14	25 핀란드	2	46 리비아	-	67 스페인	12
5 오스트리아	9	26 마케도니아	6	47 룩셈부르크	1	68 스리랑카	3
6 벨기에	2	27 프랑스	24	48 마다가스카르	1	69 수단	1
7 볼리비아	1	28 독일	13	49 말레이시아	2	70 스웨덴	13
8 보스니아	1	29 가나	-	50 멕시코	-	71 스위스	13
9 브라질	16	30 그리스	-	51 모로코	3	72 시리아	-
10 불가리아	4	31 과테말라	-	52 네 팔	-	73 태 국	9
11 부르키나파소	1	32 온두라스	-	53 네덜란드	4	74 튀니지아	-
12 카메룬	-	33 헝가리	-	54 뉴질랜드	2	75 터 키	3
13 캐나다	8	34 아이슬란드	2	55 나이지리아	2	76 영 국	12
14 칠 레	1	35 인 도	21	56 노르웨이	9	77 미 국	32
15 중 국	61	36 인도네시아	6	57 파키스탄	1	78 우루과이	-
16 콜롬비아	3	37 이 란	58	58 파라과이	1	79 베네수엘라	-
17 콩 고	-	38 이라크	2	59 페 루	-	80 세르비아몬테그로	1
18 코스타리카	-	39 아일랜드	-	60 폴란드	3	81 잠비아	3
19 크로아티아	-	40 이탈리아	3	61 포르투갈	5	82 짐바브웨	3
20 키프로스	-	41 코트디부아르	1	62 루마니아	7	비회 원국	5
21 체 코	1	42 일 본	143	63 러시아	51	몽골, 감비아	

- 학계 및 기업체 대표  
중국 수리수전연구원장, 일본 댐기술센타회장/Mizutani Kensetsu社 사장/Sato Kogyo社 사장, 러시아 Association Hydroproject 사장, 태국 ATT Consultants社 사장, 프랑스 Hydrocoop 사장, 미국 MWH 부사장 외

주요 회의 현황

- 집행위원회 : 5.20(목) ~5.21(금)
  - 2006년 총회 Questions 선정
    - Question 84 : Technical solutions to reduce time and costs in dam design and construction (댐 설계 및 건설시 공기와 비용절감을 위한 대책)
    - Question 85 : Management of the downstream impacts of dam operation (댐 운영에 따른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관리)
    - Question 86 : Safety of earth and rockfill dams (흙댐 및 사력댐의 안전)
    - Question 87 : Flood and drought evaluation and management (홍수·가뭄 평가 및 관리)
  - 부총재 선출
    - 유럽 지역 : Andy Hughes (영국대담회, 2004~2007)
    - 6<sup>th</sup> post : 윤용남 (한국대담회, 2004~2007)
  - 차기대회 준비 보고
    - 2005년 73차 연차회의 : 이란 테헤란

- 2006년 22차 총회 : 스페인 바로셀로나
  - ※ 러시아 2007년 75차 연차회의 유치 의사 표명
  - “ICOLD Award” 수상자 발표
    - Woodrow W. Crouch (미국대담회 회장) 외 2명
  - 2003년 결산 및 2005년 예산 승인
  - 기술분과위원회 Technical Reports 승인
    - Weak Rocks and Shares in Dams, Reservoir-Triggered Seismicity, Dams and Resettlement - Lessons learnt and recommendations, Shared Rivers - Principles and Practices, Role of Dams i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River Basins 등
- 워크샵 : Dam Safety Problems and Solutions - Sharing Eperience (5.20)
  - 참석자 : 450명
  - 논문 : 16개국 62편 접수, 10개국 10편 발표
  - 주요 내용
    - 각국의 댐안전 관련 보수·보강 사례 발표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에 따른 대책 소개
- 심포지엄 :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for Sustainable Dam Projects (5.21)
  - 참석자 : 500명
  - 논문 : 20개국 107편 접수, 15개국 18편 발표
  - 주요 내용
    - 수자원개발과 생태계 보전, 생태 복원, 댐과

- 種 다양성, 보상 및 이주 등 자연·생태·사회·경제측면의 지속가능 수자원사업
- ICOLD Zone별 Group Meeting
  - INCA (ICOLD National Committees of Americas) Meeting
    - 일시 : 5월 17일(월) 10:00~12:00
    - 참석자 : 아메리카 지역 7개 National Committees
      - Argentina, Brazil, Canada, Colombia, Peru, USA, Venezuela
  - APG (Asia-Pacific Group) Special Session
    - 일시 : 5월 18일(화) 08:30~11:30
    - 참석자 : 아시아 지역 12개 National Committees
      - Korea, Australia, Japan, Malaysia, Pakistan, China, Nepal, Thailand, India, Indonesia, New Zealand, Sri Lanka
  - AAA (Africa-Australasia Association) Meeting
    - 일시 : 5월 18일(화) 12:00~14:00
    - 참석자 : 아프리카-오세아니아 지역 10개 National Committees
      - Australia, Burkina Faso, Congo, Egypt, Lesotho, Morocco, New Zealand, Nigeria, South Africa, Zambia

- 한일중 대담회 (KNCOLD-JCOLD-CHINCOLD) Meeting
  - 일시 : 5월 21일(금) 12:30~14:00
  - 참석자 : 3개국 대담회 회장, 부회장 및 전임이사
  - 내용 : 3개국 대담회간 기술교류회의 협약 체결
    - 2004년 10월 의창(삼협댐)에서 기술교류회의 개최
    - 2005년 일본에서 기술교류회의 개최

Press Conference

- 일 시 : 5.20 12:00~13:00
- 참석자 : 총재(Viotti), 사무총장(Bergeret), 심포지엄 위원장(윤용남), ICOLD 홍보교육분과 위원장(Walz), 조직위 사무총장(김우구)



총재 기자회견 2004. 5. 20

□ 기자단 : 코리아타임즈, 코리아헤럴드, 중앙데일리, 연합뉴스, 안동 MBC, 건설환경신문 등

□ 회견 내용

- ICOLD 활동 소개 및 댐 관련 정책 방향 소개
  - 지속가능한 댐 사업 및 저개발국가 수자원 개발 지원 등
  - Benefits and Concerns about Dams, Dams and Environment 배포
- 기자단 질의 응답

Environmental Factors Priority in Dam Building  
 < 코리아타임즈, 2004. 5.21 >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are gaining increased attention in dam construction around the world amid growing concerns that dam construction often leads to environmental destruction.

Leader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ICOLD) were in agreement in a press conference held at Sheraton Grande Walkerhill in eastern Seoul yesterday.

“Protecting the environment near a site designated for a new dam is a priority in building dams and the government should help the public learn about the importance of dam construction”, said Yoon Yong-nam,

chairman of the symposium and workshop.

Recently, many green activists have been voicing concerns over dam building due to the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the 72nd ICOLD meeting, some 850 experts from 65 countries, including 250 from Korea, gathered to exchange information and experiences concerning dam projects for seven days to May 22.

ICOLD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volved in the improvement of the plann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dams and associated civil engineering works, bringing together relevant information and studying related questions.

“The science of dam engineering and water management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advanced by ICOLD’s activities. ICOLD is preparing to meet tomorrow’s challenges in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said Mr. Andre Bergeret, secretary general of ICOLD.

The world’s leading professional organization for dams was founded in 1928 and now has about 7000 individual members from 82 countries, consisting of practicing engineers,

geologists and scientists from governmental and private organizations. The main objectives of the Paris-based organization are to exchange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dam projects, to address emerging issues such as the checking of older dams and reviewing environmental impact, and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world’s water resources.

South Korea joined the organization in 1972, becoming the 67<sup>th</sup> member country of ICOLD. This year, the country saw the 72nd meeting being held on its soil for the first time.

For a country which is heavily dependent upon dams for drinking water and flood control, sharing know-how with advanced countries in dam building and maintenance is very important, experts say.

Cassio Viotti, president of the ICOLD, said developed countries should try to provide information relating to dam projects and “ICOLD should direct its action toward developing nations.” He also stresse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s seen improvements for their people with less worry over drinking water, longer life-expectancy and greater energy availability over the past decades. According to Viotti,

hydropower costs less to develop than nuclear power and constitutes a clean alternative energy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Brazil.

Here in Korea,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due to dam construction and management, some district governments are trying to create eco-friendly environments such as parks near reservoirs and dams.

“More than anything els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dislocated people who had no choice but to leave their towns with better places to live and other benefits”, said Mr. Arthur Walz, chairman of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South Korea began developing dams in the 1970s due to soaring popul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troduced the fir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1981, and is now moving to constructing environmentally-friendly and sustainable mid-sized dams that meet global standards.

International conference discusses ideas,  
 technology on construction of dams  
 < 코리아헤럴드 2004. 5.21 >



Dams are a worthy investment for national growth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ays the head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dvoc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 believe dams are a tool for development and think our organization should direct its actions toward developing countries," said Cassio Viotti,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during a news conference held at the Sheraton Grande Walkerhill in Seoul yesterday.

The 72<sup>nd</sup> commission conference, which opened Sunday and closes Saturday at the Sheraton hotel, has gathered 866 participants from more than 65 countrie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dam construction by exchanging ideas and technologies.

The commission head noted that his organization plays a major role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it makes efforts to bring in developed countries that could serve as a good learning model.

"With ICOLD representing countries comprising up to 8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we have been able to gather a lot of information throughout the years," Viotti said. "This is the 72<sup>nd</sup> meeting that we have led to help countries around the world

exchange experiences."

The global body, headquartered in Paris, France, was established in 1928. Korea joined in 1972.

Drawing on the success of dam construction in his native Brazil, Viotti, who has 35 years experience in the industry, emphasized that he has seen "all the good that dams have done" for his country.

He explained that Brazil started building dams for hydroelectricity generation 40 years ago. Since then, hydroelectric generation has increased 16-fold while the population has grown 2.5 times.

"Energy provided by hydropower and irrigation are helped by dams," he emphasized. "Availability of drinking water in the past 40 years has risen from 50 percent to 97 percent, leading to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people's well-being."

In addition to increasing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n Brazil from around 58 years to 68 over the last 40 years, Viotti said that greater water availability has also helped businesses grow.

Including the water industry, other

industries have benefited from the rise in production with the availability of cost-effective hydroelectricity.

"We don't have oil and coal is not good for the environment, so the right option for Brazil was hydropower," said Viotti.

Holding commission meetings every year thus serves as an important means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around the world, simply by meeting people. In recent years, the organization has focused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dam construction, which it believes is key to a country's social and economic prosperity over the long run.

"These meetings allow members to learn how to get more efficient use and learn cheaper ways of producing hydro power just by meeting people," said Viotti.

"So I think our main goal is to divulge information that ICOLD has gathered throughout the years. And with technology of all the members, countries can implement dams in a sound environment in consideration of all social issues."

2004년 서울연차회의 개최 이후 한국대담회는

국제대담회 속에서 그 위상을 인정받으며 활발한 국제활동을 펼쳐나간다.

2005년 5월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73차 ICOLD연차회의에 참석하여 심포지엄, 집행위원회, Asia-Pacific Group Session에 참가한다. 10월에는 '기상변화에 따른 기존 댐의 안전성 확보'라는 주제로 댐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06년 6월에는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된 74차 연차회의 및 총회에 곽결호 회장을 비롯한 43인의 한국대표단이 참가한다. 집행위원회에서 스페인 Luis Berga가 총재(2006-2009)로 선출된다.

10월에는 제3회 동아시아 댐기술교류회의(EADC)가 대전에서 개최된다. 일본, 중국대담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외국참가지들을 비롯한 총 250여명의 댐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2007년 6월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대담회 제75차 연차회의에 윤용남 고문을 비롯한 총 37인의 한국대표단이 참가한다. 윤용남 고문이 좌장을 맡아 한국대담회가 주관한 Asia Pacific Session에는 약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발표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0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4회 동아시아댐기술교류회의에 곽결호 회장을 비롯한 총 27인의 대표단이 참가해 구두발표, 기술견학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12월에는 '최근의 댐 기술동향'이라는 주제로 원로회원 등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댐기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2007년까지 전임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대댐회가 2008년 사무국의 이전(K-water연구원 → K-water본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과 동시에 정관개정(안)이 승인되어 우창석(수공 기술 2급)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된다.

4월 미국 포틀랜드에서 개최된 USSD 연차회의 및 심포지엄에 국내에서 2명의 회원이 참가해 구두발표를 하였다. 5월에는 국제방재산업기술전(DEMEX 2008)의 일환으로 개최된 댐 기술심포지엄에 김여택 고문을 비롯한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댐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본 회 활동목표 및 운영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하여 발전기획위원회(위원장 염경택 본부장)가 구성되었다.

이후 발전기획위원회에서 도출한 여러 가지 아이

디어를 토대로 국내외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2009년 3월 대대적인 정관개정이 이루어진다. 회원의 정의, 임원 및 조직(부회장 4, 이사 30)이 개편되고 단체소속회원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특별위원회 개념의 기획, 학술, 국제협력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변경되어 활동 및 역할을 강화하게 되었다. 5월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77차 연차회의 및 23차 총회에 이순탁수석부회장을 비롯한 23인의 한국대표단이 참가하여 기술분과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스페인대댐회의 지지를 얻은 중국대댐회의 Dr. Jia Jinsheng (2009-2012)이 총재로 선출되어 국제대댐회 내의 아시아 국가들에 무언의 힘을 실어주었다. 8월에는 2015년 세계물포럼 국내 유치를 위한 협력활동으로 세계물위원회(WWC)회원가입을 진행하였으며 이순탁수석부회장이 한국대댐회를 대표하여 프랑스 마르세유

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2006년 제3차 EADC 국내 개최에 이어 2009년 10월 제6회 동아시아댐기술교류회의(EADC)가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일본, 중국 외에 터키, 인도네시아, 호주 등 6개국 268명의 전

문가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0년 1월, 대댐회 사무국이 다시 K-water연구원으로 이전하였고, 이혜근(K-water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2010년도의 주요활동은 아래 표와 같다.

□ 2010년 주요 사업 실적

구분	사업명	일자	세부내용	
회의	이사회	2. 19	10년 1차 이사회	
	정기총회	2. 19	사업 및 예·결산 의결	
	위원회 간사단 회의	8. 12	상반기 활동 내용 및 하반기 일정 협의	
	상반기 활동보고회	8. 26	상반기 활동 및 하반기 중점업무 발표	
	부회장단 및 간사회의	11. 22	11년도 사업계획 협의 등	
국제교류	미국대댐회	4. 12~16	USSD 연차회의 참가	
	세계댐등록부 업데이트	10월	국내 댐 및 저수지 (1,302개) 현황 보고	
	중국대댐회 기술교류회의	7. 18~21	양수발전 등 국내 기관 담당자 회의	
	일본대댐회 답사단 방문 (2012 연차회의 pre-tour현장)	11. 23~26	강정보, 낙동강하구둑, 부산, 경주	
회원관리	신규단체회원사 확보	8월~	실적: 5개 신규단체 입회	
	단체회원사 관리방안 수립	9월	회원사 미납회비 정리특별기간 운영	
	신규중신회원 입회	연중	신규중신회원 37명	
편찬	중신회원명부 제작	8월		
	대댐회지 발간	9월	10년 활동 및 회원사 사업 소개 등	
제작	홈페이지 개편 및 뉴스레터발송	9월~		
	대댐회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9. 30	연구책임자: 김형수교수 / 중원대	
용역발주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시설물 활용 극대화 방안 구축	10. 21	연구책임자: 추태호 교수 / 부산대	
	용역 중간보고회	12. 27	용역 진행 중간 점검	
	기획	기획위 운영보고회	4. 19	정관개정 내용 협의 등
위원회 활동	학술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	3월~	임원개편, 회원정의 등
		수자원학회 기획세션	5. 14	다목적 댐의 운영
	수자원학회 전시부스 운영	5. 14	ICOLD 활동 및 KNCOLD 현황 등	
	토목학회 특별세션	10. 21	21세기의 댐안전 현황과 전망	
	댐기술심포지엄 개최	11. 4	기후변화 대응 댐기술과 원심모형실험	
	국제협력	국제대댐회 베트남 연차회의 참가	5. 20~28	대표단 46명 참가, 구두발표 4편
		KNCOLD 전시부스 운영	5. 20~26	4대강 사업현황 및 한국의 댐 소개
	수상	2010년 물연합회 수상후보자 추천	2월	후보자: 류태상(K-water) 결과: 기술상수상
	기타	사무국 이전 및 신임 사무국장 임명	1월	K-water연구원
		사무국운영소위원회 구성	8월	



한국대댐회 비전 및 발전방향

2010년은 그 어느 활동보다 1999년 이후 발간이 중단되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회원명부와 대담회지'가 발행된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3월에는 대담회의 성격을 고려해 학술위원회의 명칭을 기술위원회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이 이루어졌다.

2011년도 역시 국내외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졌으며 사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12년, 바로 한국대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해이다. 1972년 창립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국내외 행사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활발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회원관리, 기술정보의 전파와 공유 등에 대한 노력은 더욱 신경 쓰고 분발해야 하는 업무임을 자성해야 할 것이다.

40주년을 기점으로 과거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본 회의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하여 지금보다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함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 2011년 주요 사업 실적

구분	사업명	일자	장소	세부내용
회의	1차 이사회	2.24	서울	총회 안건 사전 심의
	정기총회	2.24	서울	사업 실적, 계획 및 예.결산 의결
	2차 이사회	4.18	서울	신임이사 상견례 및 추진업무보고
	기획위 용역 발표회	5.17	서울	대담회 발전 방안
	3개위원회 실무협의회	7.2	대전	위원회별 사업계획 검토 등
국제협력	ICOLD 6th post 부총재 후보 추천	1.17		일본대담회 회장 (Dr. T. Sakamoto)
	미국대담회 연차회의 참석	4.11~15	미국	하익수회원 논문발표
	제79차 국제대담회(ICOLD) 연차회의	5.29~6.3	스위스	대표단 31명 참가
	제7회 동아시아댐기술교류회의 참가	9.27~29	중국	대표단 25명 참가
	일본대담회 기술견학단 방문 기술자료 업데이트	10.26~28		한탄강댐, 담양홍수조절지 등 Hydropower&Dams Journal
기술교류	물 분야 원로 및 전문가 워터투어	4.27~28	담양	18인 참가, 담양홍수조절지 등
	RCD 댐기술심포지움 개최	10.13	과천	초청강연 및 주제발표, 종합토론
	방재기술컨퍼런스 개최	10.27	서울	기후변화, 댐건설 및 운영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토목학회 특별세션 개최	11.3	일산	한국의 댐 60년
조직	정관개정	3.15		이사범위, 위원회명칭 등
	부회장 선임	2.14		4인(수석, 기획, 기술, 국제협력)
	한국대담회 YEF 위원회 신설	8.31		Young Engineers Forum
	신규단체회원사 입회	2월		태영건설 (특급회원사)
편찬 및 제작	대담회지(vol.35) 제작	12월		기술기사 및 활동 소개
	홈페이지 개편 및 e-뉴스레터발송	연중		기술자료 웹사이트 다운로드 허용
수상	'11년 물연합회 수상후보자 추천	2월		이상호회원(부경대) 학술상 수상
기타	신임 사무국장 임명	1월		오병현박사(K-water연구원)

